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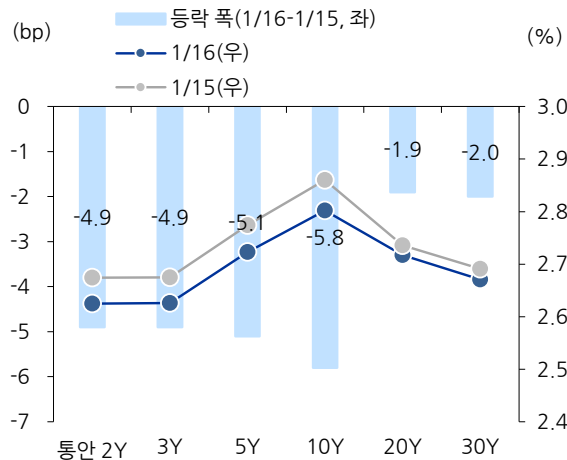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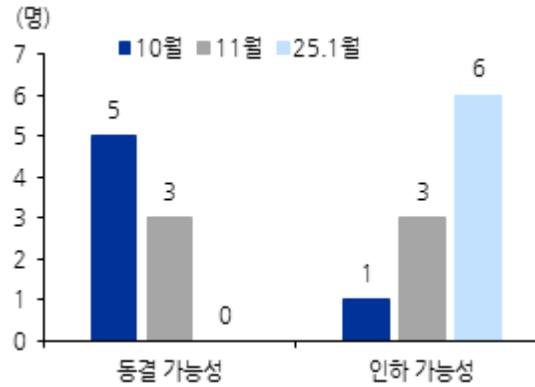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/16일	1D	1W	YTD
국내 채권				
한국 국고채 3년물	2.626%	-4.9	12.6	3.0
한국 국고채 10년물	2.802%	-5.8	2.4	-5.3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7.6	18.5	27.8	25.9
3년 국채 선물(KTB)	106.70	18.0	-30.0	5.0
10년 국채선물(KTB)	117.51	74.0	-47.0	59.0
해외 채권				
미국채 2년물	4.229%	-3.6	-3.3	-1.0
미국채 10년물	4.614%	-4.0	-5.0	2.9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8.5	38.9	40.2	34.6
독일국채 10년물	2.545%	1.0	0.5	18.0
호주국채 10년물	4.501%	-12.2	1.3	13.3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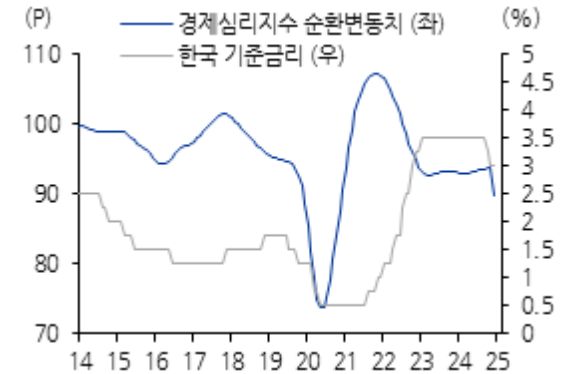
금통위원 전원 3개월 내 추가 인하 전망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전일 근원 CPI 둔화로 하락한 미국채 금리에 연동. 장 중 완화적 스탠스 보인 금통위 영향 속 금리 낙폭 확대
- 1월 금통위, 기준금리 동결. 다만 신성한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 확인했고, 3개월 포워드 가이드는 금통위원 전원 인하 가능성 열어둠
- 총재, 성장률의 전망치 하회 예고하며 경기만 보면 인 하해야함을 언급. 환율 불확실성,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경감될 시간을 벌기 위해 쉬었다 갈 뿐 인하 기조에 변 함은 없음. 2월 인하 가능성 큰 상황

다만 심리 충격에 따른 내수 영향 점검이 필요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연준측 도비시 발언에 금리 하락. 윌러 이사, 지표에 따라 연내 3~4회 인하 가능하다는 입장. 최근 인플레이 지표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
-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이전치 및 예상치 모두 웃돌며 강세 흐름을 뒷받침
- 12월 소매판매, 예상치 하회했으나 영향 제한적. 이전치는 상향조정됐고, 변동성 큰 4개 품목 제외한 컨트롤 그룹은 작년 9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율 기록
- GDP 연동되는 소비품목도 대체로 견조. 이를 반영하여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는 4q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.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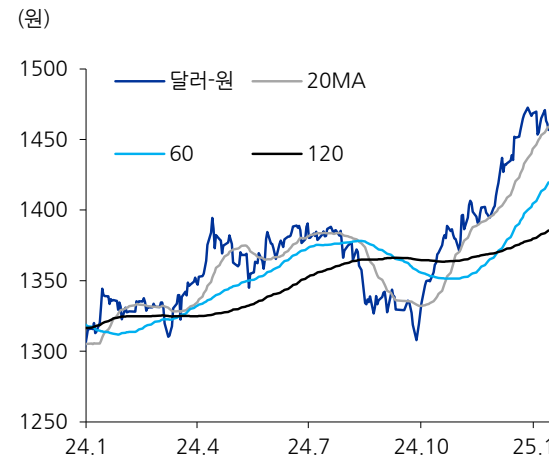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/16일	1D	1W	YTD
환율				
원/달러	1,456.70	-0.3%	-0.3%	-1.1%
달러지수	108.97	-0.1%	-0.2%	0.5%
달러/유로	1.030	0.0%	-0.0%	-0.5%
위안/달러(역외)	7.35	-0.0%	-0.1%	0.1%
엔/달러	155.22	-0.8%	-1.8%	-1.2%
달러/파운드	1.223	-0.1%	-0.7%	-2.3%
헤알/달러	6.06	0.7%	0.3%	-2.1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78.68	-1.7%	6.4%	9.7%
금 현물(\$)	2,715.75	0.7%	1.7%	3.5%
구리 3개월물(\$)	9,245.00	0.8%	1.8%	5.4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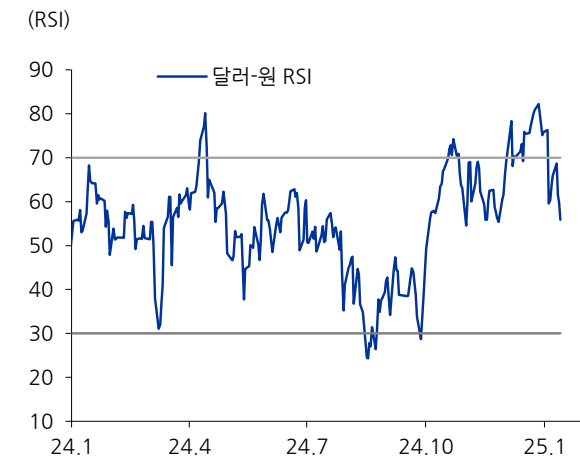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4.50원 하락한 1,456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7.50원 마감.
- 간밤 미국 Core CPI 예상치 하회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-원도 하락 출발. 오전 중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 직후 1,449.60원까지 하락.
- 그러나 도비쉬했던 통방문과 기자회견담회 속에 달러-원은 재차 반등. 사실상 인하를 한 달 미뤘을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분위기 형성.
-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-원 반등 폭 제한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월러 이사의 비둘기 발언 속 하락.
- 12월 소매판매는 +0.4%(M) 증가해 시장 예상을 약간 밑돌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됨. 변동성 높은 품목들을 제외한 컨트롤 그룹은 +0.7%의 견고한 증가세 기록.
- 반면 월러 연준 이사는 도비쉬한 발언을 쏟아냄. 12월 CPI에 대해 '매우 좋았다'고 평가했으며 현재 속도라면 상반기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. 여기에 3월 인하를 배제하지 않았으며, 데이터에 따라 연내 3~4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평가.
- 한편 베센트 미 재무장관 후보자는 인상 청문회에서 감세 연장 조치는 필수적이며, 관세는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언. 미국이 심각한 정부지출 문제를 겪고 있다고도 언급.